



“제주체육의 미래 향해 힘 모을 것”



부평국 초대 민선 제주도체육회장 인터뷰 “재정 확보 주력… 체육인 고충도 살필 것”

“제주체육이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16일 업무를 시작한 부평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장이 이같이 말했다.

제주체육이 ‘민선 체육회장 시대’를 열었다.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되면서 지난 15일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부 회장은 ‘민선 제주도체육회장 1호’가 됐다. 처음인 만큼 주어진 과제도 많다. 그는 “제주체육에는 할 일이 많다”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예산 확보’다. 제주도체육회 예산의 80%를 제주도 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민간인이 체육회장을 맡으면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탓이다.

부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확보”라면서 “제주도,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도 조례를 제정하겠다. 제주체육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책임을 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거 과정에서 내뱉던 공약 실현도 약속했다. 부 회장은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연계 육성하고 서로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옛 탐라대 부지를 활용해서 스포츠 레저타운을 조성하고 전지훈련의 메카로 삼기 위한 공약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도자, 감독 등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도 살피겠다”며 “체육인들이 운동

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부 회장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상대 후보의 좋은 공약을 공유하겠다”고 했다. 그는 “도세가 약한 제주에선 모두가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하다”며 “체육인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대 민선 체육회장직을 수행하는 부 회장은 “도내 체육인을 위해 심부름하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34년 간 체육 일을 봐 오면서 깨끗하게 살자를 신조를 지켜왔다”며 “도민 혈세를 축내지 않고 선수와 도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 경기장 등 현장을 열심히 돌아보면서 선수와 지도자 등의 고충도 꺼내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서의 앞발 후려차기 16일 경남 양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0년 태권도 국가대표선수 선발 최종대회(겨우기)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 남녀 총 128명의 선수가 참가해 각각 8체급 16명의 대표선수가 가려진다. 여자부 통합 -57kg급 16강전에서 김민서(왼쪽 빨간색 호구, 경희대)가 앞발 후려차기로 김솔라(대구보건고)의 얼굴을 공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يونايتد, 신임 단장 김현희 임명

부산·대구·울산 거친 전문가 “1부리그 승격 목표로 집중”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김현희(45) 전 울산현대 사무국장을 신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2005년 부산아이파크에 입사해 축구와 인연을 맺은 김 단장은 대구FC, 울산 현대를 거치며 홍보마케팅, 사업경영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제주는 2020시즌 1부리그 승격을 위한 혁신의 하나로 구단 운영의 전 분야를 거친 김 단장을 적임자로 선택했다.

김 단장은 “제주의 일원이 돼 기쁘다”며 “1부리그 승격 목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주 유나이티드는 김현희 신임 단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제주유나이티드 제공

어 “제주도민에게 언제나 행복을 주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시체육의 제2 도약 위해 뛰겠다”

김종호 신임 제주시체육회장 “침체된 제주시체육회 정상화”

“제주시체육의 제2의 도약을 향해 힘차게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민선으로 치러진 제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종호(사진) 신임 회장은 16일 침체된 제주시 체육의 정상화 등 새로운 변화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부족한 자를 믿고 민선 초대 체육회장을 맡겨준 제주체육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제주시체육의 제2 도약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3년의 임기 동안 주어진 임무를 반드시 해 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는 “임기 내에 꼭 이뤄야 할 단기 정책 방향과 실행 사업, 중·장기적으로 제주시체육의 기반을 굳건히 할 정책과 실행방안으로 공약을 구분했다”며 “첫번째 공약으로 침체된 제주시체육회 정상화를 통해 전국 1등 위상을 재정립하고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제주시를 스포츠메카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목별연합회와 읍면동장을 비롯한 단체장과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지역 체육 인프라를 구축



하겠다”며 “공원 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각 읍면동 공원을 정비하고 체육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소통하는 회장’이 되기 위해 “현장 속으로 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제주시체육인 여러분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는 회장이 되겠다”며 “체육인의 소리를 경청하고 체육인과 문제를 공감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설 확충… 서귀포시를 스포츠 메카로”

김태문 신임 서귀포시체육회장 “시민 건강증진 노력할 것”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귀포시를 대한민국 스포츠 핵심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초대 민선 서귀포시체육회장으로 당선된 김태문(사진) 신임 회장은 공식업무 첫날인 1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회원 종목단체를 비롯한 체육인들이 뜻을 모았기 때문에 이번 서귀포시체육회장에 단숨에 후보자로 출마했고 또 당선될 수 있었다”며 “이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은 “체육인 소통을 통한 결집으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국내·국제 대회 유치 등을 통해 서귀포를 대한민국의 스포츠 핵심도시로 육성하고 행정과 소통을 강화해 읍·면·동 지역 질 좋은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귀포시민 모두가 운동을 통한 건강한 문화를 즐기며 행복한 삶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체육인들과 항상 소통하며 결집된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시민과 체육인에게 사랑을 받는 서귀포시체육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핸드볼협회장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이사·부회장, 서귀포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역임했다.

한편 김 회장은 서귀포시체육회 선거 당시 실천 공약으로 체육행정 서비스 강화, 스포츠와 관광이 결합된 융·복합 스포츠관광 메카 조성, 서귀포시 지역 5000석 규모 대형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등을 내세웠다.

女축구 아시아 최종예선 입장권 판매 17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월 3일부터 9일까지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2020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의 입장권을 17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올림픽 최종예선은 오는 2월 3일부터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며 여자 축구 사상 최초로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은 베트남, 미얀마와 함께 A조에 속해있다. 2월 3일은 미얀마, 9일은 베트남과 경기를 치른다.

입장권 가격은 서측 지정석 3만원, 동측과 남측 비지정석 1만원, 휠체어

석 1만원이다.

할인은 비지정석에만 적용되며 제주도민 50%, Korea Football Fan(이하 KFAN) 골드 50%, KFAN 실버 30%, 초중고 학생 30%, 복지카드 소지자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장 판매는 경기 당일 키오스크 5시간 전부터 진행하며 KFAN 멤버십 사전 구매는 진행하지 않는다.

2020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 일정은 다음과 같다.

▷1경기 2/3(월) 19시 미얀마 VS 대한민국(티켓 현장판매 오후 2시부터) ▷2경기 2/6(목) 19시 베트남 VS 미얀마(티켓 현장판매 오후 2시부터) ▷3경기 2/9(일) 15시 대한민국 VS 베트남(티켓 현장판매 오전 10시부터).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제주홍익여행사
746-2200
www.jejuhongik.co.kr

★일반여행업등록 제1016호★ 2009 문화관광부 제주마이스터 & 인센티브제주여행 상품 인증/2억원 보증보험 가입업체/예약계좌: 제주은행 21-13-003418 예금주: 제주홍익여행사 '고객감동 해외여행서비스'

TOUR

**예약폭발
마감임박!**

마카오/계림/양삭 3박 5일
매주 금, 일 출발

666,000원

양양/강릉/정동진 기차여행 2박 3일

대상	화요일	금요일
일반인 판매가	430,000원	470,000원
무장애관광대상자	275,000원	315,000원

★ 무장애관광대상자: 동북장애인, 65세이상 경로, 임산부, 외국인, 만 10세미만(중동학교4학년미만)어린이를 최소 1명이라도 동반하는 최대4인(4인)의 여행객

방콕/파타야 3박 5일
출발일: 매일출발

729,000원~

남해안 봄꽃여행 2박 3일

3/13(목) 산수유+매화축제

420,000원

남해안 봄꽃여행 2박 3일

4/10(목) 남해안 봄꽃 축제

450,000원

하노이/하롱베이/닌빈(짱안) 3박 5일 제주직항으로
떠나는 환상의 여행

2/19(수) (잔여석 10석) **5/1(금)**

“황금연휴특가”

제주직항 2/19 **899,000원**
선착순

5/1 **999,000원**

★특식3회(파라다이스뷔페, 씨푸드, 삼겹살 무제한)
★전신마사지 1시간(탑별도), 베트남 전통노모자 증정, 스트리파 포함

장사/장가계 4박 5일

3/6, 3/7, 3/27

920,000원~

대만 3박 4일
출발일: 여행사 문의(탑별도)

699,000원~

말레이시아/싱가폴/말라카 쿠알라룸푸르/말라카/젠팅

999,000원~ 4성급 호텔 숙박 가능
799,000원~ 4성급 호텔 숙박 가능

매주 2회출발 (월, 화)

공/통/사/항 왕복항공료, 1급호텔(2인1실), 일정상의 식사제공, 관광지입장료, 전용차량료, 인술자 부분별 동행, 1억원여행자보험,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기금, 공항세, 최소 15명이상 출발 모집가-선착순

★불포함: 가이드 & 기사 팀/개인비용, 부가세 불포함